

아리수 안전성 세계가 인정

EPA 먹는물 수질 기준, FDA 병물 기준에 모두 OK!
199개 항목 검사 결과 적합 판정, 국제적 수질 입증



서울의 수도물 아리수가 세계 유수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아 그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서울시는 아리수를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UL(Underwriters Laboratories)과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International)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미국 환경보호청(EPA) 먹는물 수질 기준과 미국 식품의약청(FDA) 병물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14일 발표했다. UL은 제품 안전의 대명사인 UL규격을 제정하

는 곳으로 미국 48개주에서 먹는물 검사기관 인증을 받았으며, NSF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유일한 협력 시험기관이다. 서울시 상수도연구원은 지난 7월 서울시 수도물평가위원들이 참관한 가운데 불광초등학교의 수도물을 채수해 아리수 병물과 함께 수질검사를 의뢰했으며 최근 검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 이번에 검사한 내용은 미국 EPA 먹는물 수질기준과 FDA 병물 기준을 포함해

농약, 산업용 화학물질 등 총 199개 항목이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이들 기관에 모두 167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이번 검사에서는 32개 항목을 추가해 안전성 확인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지난 7월 장마철의 한강 원수가 흙탕물 수준(탁도 285 NTU)으로 수질이 악화됐을 때에 수도물을 채수했으나, 검사 결과 정수 처리된 물의 탁도가 0.1 NTU 이하인 '불검출'로 나와 서울시 수처리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협회장)은 "아리수 수질 온·오프라인 실시간 공개 서비스가 지난 6월 UN 공공행정대상을 받음으로써 서울시 상수도의 행정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받은 데 이어 이번 수질 검사를 통해 아리수가 국제 수준의 물로 또 다시 입증됐다"며 "앞으로는 서울시가 보유한 수도물의 생산, 관리 능력을 지방 상수도에 기술 지원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내외 물산업을 한눈에 보다

상하수도의 모든 것, 2009 WATER KOREA 송도에서 개최
6개국 135개 업체 참가, 최신 기술 및 신제품 선보여



물산업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박람회인 2009 WATER KOREA(국제상하수도전시회)가 지난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됐다.

우리 협회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6개국 135개 기업이 490개 부스 규모로 참여했다. 국내외 상하수도 기술의 현 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2002년 첫 개최 이후 해마다 녹색성장

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명실상부 국내 최대의 물산업 종합 박람회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상하수도전시회는 그간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영환경에 놓여 있는 상하수도 관련 기업들에게 신제품 홍보의 장을 마련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민관과 산학연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신기술 개발에 협력하는 물산업

성장 촉진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행사 기간 중에는 기자재 및 기술 전시 외에도 각종 세미나 및 학술대회,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상하수도인의 밤, 물 사진 전시회, 취업 박람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상하수도인의 밤' 행사에서는 수도서비스 분야에서 업무개선 및 기술발전에 앞장서 온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상하수도인상 시상식이 거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는 6개 특·광역시와 7개 도의 현장 종사자들이 참여해 가정용 급수관과 하수관 연결 공사에 대한 기능을 겨루며 흥미진진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만의 환경부장관,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이덕수 서울시 제2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한 개막식에서 협회 정도영 상근부회장은 "상하수도 종사자들의 화합과 정보 교류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물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WATER KOREA가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사 의의를 밝혔다. [☞](#)